

# 高麗 茶詩에 나타난 脫俗과 養生의 美學

박 숙 희\*

<目次>

I. 序論	III. 高麗 茶詩에 나타난 脫俗과 養生의 美學
II. 茶의 傳來와 茶詩 生成의 背景	IV. 結論

<국문 초록>

茶는 고조선 때 유입되어 우리 민족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처음에는 신에게 올리는 제물로 사용되었으나, 삼국 시대,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점차 생활에도 확산되어 궁중은 물론 서민에 이르기까지 의식 때에는 물론이요 일상적으로도 즐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차는 차도구의 필요에 의해 도자기의 발달은 물론이요, 다실의 필요에 따른 건축 양식, 차와 곁들여 먹던 茶食, 차를 마실 때 입던 茶禮服 등 우리 생활의 여러 가지 부문에 걸쳐 다양한 발달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지식층에 속하는 일부 우리 선조들은 漢詩를 짓고 즐기는 생활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는 차를 소재로 한 것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차를 소재로 한 茶詩는 다른 한 시가 갖는 시대 정황이나 지은이의 사상 외에 시대별로 선조들의 차 생활과 차 정신을 속속들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차를 즐겼던 수많은 유학자, 승려, 道學者들은 나름대로의 차 생활을 즐기면서 茶禮儀式, 茶禪一如 思想, 神仙 思想의 법도와 체계를 세웠는데, 이러한 사상들은 단순히 차 생활이나 차 정신의 바탕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

\* 충북진천고등학교 교사 / cjtea2000@hanmail.net

상과 철학, 예술, 종교 정신의 바탕이 되었다. 이것은 충효 정신, 선비의 지조와 절개, 부녀자의 정절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통 문화의 근저를 이루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古代로부터 고려 시대까지의 우리나라 茶詩의 시대적인 발달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사회적, 문학적 배경을 提高해 보고자 한다. 선비들의 높은 차정신의 세계와 기풍, 茶詩를 통한 벗과의 돈독한 교분, 자연과 합일하여 그 속에서 안정과 교감을 이루고 脫俗의 경지에서 자연의 이치를 즐긴 생활, 차의 약리적인 면을 귀중히 여겨 생활의 일부로 음용했던 지혜의 면모를 살펴봄으로써 茶詩의 특징과 내면의 멋을 되새겨 보는 계기로 삼아, 이들 속에서 茶詩가 갖는 문학적 가치를 논해봄으로써 우리 차 문화의 정신을 나름대로 정립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茶詩, 한시, 고려, 선비, 자연

## I. 序論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차의 효능은 계속적으로 연구 발표되고 있고 근래 동양문화의 재평가 속에 차 문화도 새로운 관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랜 세월 우리 문화 속에 자리 잡아 고락을 함께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들의 고급 기호품으로 여겨지던 차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茶는 고조선 때 유입되어 우리 민족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차는 차도구의 필요에 의해 도자기의 발달은 물론이요, 다실의 필요에 따른 건축 양식, 차와 곁들여 먹던 茶食, 차를 마실 때 입던 茶禮服 등 우리 생활의 여러 가지 부문에 걸쳐 다양한 발달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지식층에 속하는 일부 우리 선조들은 漢詩를 짓고 즐기는 생활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는 차를 소재로 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차를 소재로 한

茶詩는 다른 한시가 갖는 시대 정황이나 지은이의 사상 외에 시대별로 선조들의 차 생활과 차 정신을 속속들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고려는 918년 건국되어 1392년 멸망까지 475년간 지속되었다. 표면적으로 유학이 치국면이나 문화면으로 영향력을 끼쳤으나 불교는 국민사상을 지배했다. 더구나 光宗 9년 중국 唐制의 科擧法의 시행으로 고려의 漢文學은 황금시대를 이루었다. 표면적으로는 유가사상이 지배한 듯하나 經書와 史書에 통했을 뿐이고 신라 때부터의 佛家의 佛敎사상을 꺾지는 못했다. 이런 사상적인 상황은 문학면에도 반영되어 고려의 문학은 儒佛 兩大思想을 배경으로 產出되었다.<sup>1)</sup> 승려들은 進茶儀式을 행하면서 차를 음용하였다. 유학자들과의 교류 속에 차를 즐기며 약리적 효능 속에 피로감과 권태감을 쫓기도 했다. 이렇듯 고려는 차 문화가 발달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고려시대 茶詩 속에서 선승이나 선비들이 脫俗의 경지에서 자연의 이치를 즐긴 생활, 차의 약리적인 면을 귀중히 여겨 생활의 일부로 음용했던 지혜의 면모를 살펴보고, 茶詩의 특징과 내면의 멋을 되새겨 보는 계기로 삼아 그 문학적 가치를 논해봄으로써 우리 차 문화의 정신을 나름대로 정립해 보고자 한다.

## II. 茶의 전래와 茶詩 생성의 배경

### 1. 차의 기원과 전래

인류가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陸羽의 『茶經』에 의하면 “神農氏부터이며, 魯의 周公 때에 널리 퍼졌다”<sup>2)</sup>고 하여 차는 이미 전설상의 三皇

1) 文璇奎, 『韓國漢文學』, 반도출판사, 1979. pp.165-170.

2) 陸羽, 『茶經』, “六之飲, 茶之謂飲 發乎神農氏 聞於周公”

五帝 시절부터 마셔온 것을 알 수 있다.

육우는 “차는 남쪽 지방의 귀한 나무이다”<sup>3)</sup>라고 하여 차는 중국 남부 고온다습한 지역에 야생으로 생겨나 약초로써 사용되어 오면서 자연스럽게 飲茶 풍습이 정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중국의 차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飲茶 風俗으로 정착되었을까. 중국의 구중겸(仇仲謙)은,

한무제(漢武帝) 원봉년(元封年)에 한나라는 조선반도(朝鮮半島)를 공격하여 낙랑군(樂浪郡), 진번군(眞番郡)을 두었다. 조선은 중국 문화를 대량으로 흡수하기 시작하였는데, 지배계층에서는 이미 차를 마시기 시작하였다.<sup>4)</sup>

고 하여 이미 한무제 때에는 음다풍속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었음을 시사했다. 正史로는 『三國史記』에 唐에 사신 갔던 大廉은 차씨를 갖고 와 흥덕왕의 명으로 지리산에 심었다는 기록이 전한다.<sup>5)</sup> 그러나 흥덕왕 이전의 차 도구, 차 관련 자료 유물들이 곳곳에서 발굴되는 것으로 미루어 우리나라의 차 유입은 正史에 기록된 연대를 훨씬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고조선 때의 사선랑, 가락국기의 獻茶<sup>6)</sup>, 고구려의 무용총, 각저총 벽화, 안압지의 다완, 신라의 화랑도 등 많은 자료들이 있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묘사된 『三國遺事』의 景德王 忠談師條를 통해서도 차를 행하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3) 陸羽, 『茶經』, “茶者 南方之嘉木也”

4) 仇仲謙, 『飲茶開筆』, 稻鄉出版社, 中華民國 80年, “漢武帝元封年間, 漢兵功朝鮮半島, 置樂浪眞番郡. 朝鮮開始大量吸收中華文化, 王朝人士已開始飲茶”

5) 『三國史記』, 「興德王條」, “冬十二月 遣使入唐朝貢 文宗召對于麟德殿 宴賜有差 入唐廻使大廉持茶種子來 王使植地理山 在自善德王時有之 至於此盛焉”

6) 『三國遺事』 卷2, 「駕洛國記」, “王之十七代孫賡世級干祗稟朝旨 主掌厥田 每歲時釀醪醴 設以餅飯茶菓庶羞等奠 年年不墜 其祭日不失居登王之所定年內五日也 芬醴孝祀 於是乎在於我.”

다시 스님 한 분이 있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등에는 걸망을 지고 남쪽에서 오고 있었다. 王이 기쁘게 보고 누상으로 맞아들였다. 그 걸망 속을 보니 다구가 들어 있었다. 王이 말하길, “그대는 누구시오?” 스님이 말했다. “충담이라 하옵니다.” 王이 말했다. “어디서 돌아오는 길이오?” 스님이 말했다. “소승은 해마다 삼월 삼짇날과 구월 중구날이면 차를 달여 남산 삼화령의 미륵세존께 공양을 올리는데, 지금도 올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王이 말했다. “과인에게도 차 한 잔을 나누어 줄 수 있는지요?” 하시니, 스님은 이내 차를 달여 바쳤는데 차의 맛이 특이하고 찻잔 안에서 기이한 향내가 풍겼다.<sup>7)</sup>

충담사가 안민가를 지은 배경을 이야기한 글이다. 당시 충담사는 정기적으로 미륵세존에게 차를 공양하고 王의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차를 올렸다. 이로써 이 시대에는 부처나 王에게 차를 올리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걸망 속에 차와 다구를 휴대해 다닌 것을 보면 적어도 王이나 승려, 귀족계급에서는 차 마시기가 보편화 된 것을 유추할 수 있다. 『三國遺事』, 「명주오대산보길도태자전기(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에도 보천(寶川) 효명(孝明) 태자가 차를 공양한 것에서도 볼 수 있고,<sup>8)</sup> 『三國遺事』 卷5에도 月明師의 兜率歌의 창작 내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차와 차도구 일습(品茶一襲)을 하사한 것<sup>9)</sup> 을 통해

7) 『三國遺事』, 「景德王 忠談師條」, “更有一僧 被衲衣 負櫻筒 從南而來 王喜見之 邀致樓上 視其筒中 盛茶具已曰 汝爲誰耶 僧曰忠談 曰何所歸來 僧曰 僧每重三重九之日 烹茶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今茲既獻而還矣 王曰 寡人亦一甌茶有分乎 僧乃煎茶獻之茶之氣味異常甌中異香郁烈”

8) 『三國遺事』 卷3, 「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에 “진여원(眞如院)에는 문수보살이 매일 이른 아침이면 36가지 모습으로 변화하여 나타났다. 두 태자는 함께 예배하고 날마다 이른 아침이면 골짜기의 물을 길어다가 일만진신의 문수보살에게 공양했다[眞如院地 文數大聖每日寅朝化現三十六形 兩太子并禮拜. 每日早朝汲于澗水. 煎茶供養一萬眞身文殊]”는 기록이 있다.

9) 『三國遺事』 卷5, 「月明師 兜率歌」에 월명사를 조원전으로 초청하여 두 개의 해가 나란히 나타나 열흘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는 변괴를 물리치고자 하였다. 이에 월명이 국선(國仙)의 무리에 속해 있으므로 향가(鄕歌)만 안다고 하며, 도술가를 지어 부르니 변괴가 곧 사라졌다. 王은 기뻐하며 차와

알 수 있다.

이는 흥덕왕 3년 대림의 차 전래 이전부터 적어도 상류계층은 飲茶 풍속이 보급되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만 어떻게 차를 마시고 어떻게 민가에 보급되어 우리 문화 속에 자리 잡았는지, 다구의 모양은 어떠한고 차나무가 자생했는지의 여부는 문헌을 통해서 밝힐 수가 없다. 하지만 山寺에는 차공양이 어느 정도는 보편화되었고 왕가에서 飲茶가 보편적인 것으로 미루어 이미 이 시대에 차나무 재배나 차 문화 확산이 민가에도 어느 정도 자리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일부 계층이기는 하나 귀한 장소나 성스러운 행사에는 飲茶가 행해져 고유의 전통 茶禮俗을 만들었고 이는 신라에 뿌리를 내렸지만 고려에 이르러 황금기를 갖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sup>10)</sup>

## 2. 茶詩 生成의 背景

### 1) 茶

차의 여러 가지 명칭, 분포, 제다법, 차의 종류 등을 아무리 잘 알아도 실제적으로 차를 마시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차를 마시는 데에도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차의 성질, 종류,茶具, 물을 끓이는 방법, 불을 다루는 요령, 차의 종류에 따른 우리는 방법 등을 알아야 맛뿐만 아니라 더 멋지게 차를 끓여 먹을 수 있다.

陸羽는 “茶는 덕행이 높은 사람이 마시는데 가장 적당하다.”<sup>11)</sup> 하였고, 朝鮮 燕山君 때의 文官 李穆은 그의 「茶賦」에 차가 가지고 있는 여섯 가지 덕[六德]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구 일습과 수정 염주 백 팔 개를 하사했다.[臣僧但屬於國選之徒 只解鄉歌不閑聲梵 …… 王嘉之 賜品茶一襲水精念珠百八箇]는 기록이 있다.

10) 拙稿, 「韓國茶禮研究」, 韓國教員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5. 高麗의 進茶 參照

11) 陸羽, 『茶經』, 「一之源」 “茶之爲用 味至寒 爲飲最宜 精行儉德之人”

첫째, 중국의 名君 堯과 舜과 같이 德이 있어 오래 살게 하고, 둘째, 유부나 扁鵲과 같이 德이 있어 병을 낫게 하고, 셋째, 伯夷나 楊震과 같이 德이 있어 기운을 맑게 하고, 넷째, 二老나 四皓와 같은 德이 있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다섯째, 皇帝나 老子와 같은 덕이 있어 神仙과 같게 하고, 여섯째, 姬公과 仲尼와 같은 德이 있어 예의롭게 한다.』<sup>12)</sup>

草衣禪師는, “茶에는 아홉 가지 어려움과 네 가지 잡이 있어 玄妙하게 쓰여진다.”<sup>13)</sup>고 하였다. 茶事는 정성이 깃들어야 하고, 이러한 반복의 일은 德을 쌓는 求道的인 修行이 되는 것이다. 또, “茶를 만들 때는 정성을 다하고 저장할 때는 잘 건조시켜 간수해야 하고, 茶를 끓일 때는 청결하게 해야 한다. 즉, 精·燥·潔을 다 갖추었을 때, 茶道는 다한 것이다.”<sup>14)</sup>라고 하였다. 『東茶頌』에서는 “茶의 몸[水]과 神[茶]이 비록 온전하더라도 中正을 잃어서는 안된다. 中正이 지나침이 없이 알맞으면 健과 靈이 잘 어울린다.”<sup>15)</sup>고 하였다. 茶를 알맞게 우려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갈하고 적당한 온도로 덥혀진 茶罐에 알맞게 끓여 식힌 좋은 물과 좋은 茶가 적절한 量으로 어우러져야 하고, 우려내는 시간이 알맞아야 하며 적당한 온도로 덥혀진 찻잔에 茶罐의 윗물과 아랫물이 알맞게 따라져야 한다. 草衣禪師도 『東茶頌』에서, “茶를 딸 때에는 묘를 다 해야 하고 茶를 만들 때에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 물은 乳泉 石池 따위의 眞水이어야 하고, 湯은 老水가 되지 않도록 中正을 얻어야 한다. 여기에 이르면 茶道는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sup>16)</sup>라고 하였다.

한마디로 차는 잘 끓인 물에 차를 우려 마시는 물질적인 개념과 법도

12) 李穆, 「茶賦」, “六德 使人壽修 使人病已 使人氣清 使人心逸 使人仙 使人禮”

13) 草衣禪師, 『東茶頌』, “有九難四香玄妙用”

14) 草衣禪師, 『茶神傳』 茶術, “造時精, 藏時燥, 泡時潔, 精 燥 潔 茶道盡矣.”

15) 草衣禪師, 『東茶頌』, “體神雖全 猶恐過中正 中正不過 健靈併”

16) 草衣禪師, 『東茶頌』, “采盡其妙 造盡其精 水得其眞 泡得其中 體與神相和 健與靈相併 至此而茶道盡矣”

에 맞는 차 생활을 통하여 현묘한 경지를 터득하는 구도적인 정신세계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차정신은 그 시대를 지배하던 사상과 철학에 바탕을 두고 유교의 다례의식, 불교의 茶禪一如의 정신세계, 도교의 自然合一 사상으로 발전되어 오며, 실생활 면은 물론 자연을 예찬하고 철학과 풍류의 멋을 완성하는 근거를 이루며 수많은 詩文의 매체로 茶詩를 낳는 발판이 되어 왔다.

## 2) 茶詩의 定義

茶詩는 茶와 詩의 복합어이다. 茶詩를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茶를 소재로 한 詩라는 뜻이다. 그러면 茶와 詩의 字義의 풀이를 통하여 좀 더 자세하게 茶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茶의 옛 글자는 荼였다. 이 茶字는 풀[艹]이 늘어서 있는[余] 모양으로 이뤄진 形聲文字이다. 茶는 보편적으로 일반명사로 쓰이거나 동사로 전성되어 사용되기도 하나 때로는 미인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sup>17)</sup> 그러나, 대부분 음료와 관련된 제재로 사용되는 글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차나무[茶樹]의 잎을 따서 끓여 만든 음료를 나타내기도 하고, 차 잎을 가공하여 만든 포괄적인 의미를 상징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詩는 문학의 꽃이면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리듬 있게 압축한 글<sup>18)</sup>’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자어로 쓰여진 詩는 문학을 대표하는 용어로써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실 字義적으로 접근해 보면 詩字 자체가 리듬 있는 글이라는 뜻을 원래 함축하고 있다. 詩字는 言과 寺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寺는 志의 뜻과 官廳[官衙]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먼저 志의 뜻을 살펴보자. 志는 사상과 감정, 즉, 情意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詩는 사상과 감

17) 唐나라 元好問의 「德華小女玉齡能誦全詩數首以此詩爲贈詩」라는 긴 이름의 시 가운데 “學念新詩似小茶[새로운 시를 배우려는 생각이 마치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 같다]”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小茶는 미소녀를 가리킨다.

18) 『書經』, 『舜典』, “詩言志, 歌永言”

정[志]을 읊는 글이라는 일차적 풀이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관청의 뜻을 가진 寺의 뜻은 다음과 같다. 옛 중국의 관리들은 인도에서 불경을 전하러 온 승려들을 초빙하여 독경을 들었고, 그 장소가 바로 관아였다. 즉, 승려가 머물렀던 곳이었기 때문에 寺는 후에 절[寺]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관청과 사찰이 서로 轉義되어 사용된 사유이다.

주지하다시피, 불경은 장단과 고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악적 요소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字義的 의미로써의 詩字에는 장단과 고저를 읊은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들 두 가지 해석을 종합하면, ‘시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음악적으로 읊은 글’이란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詩經』인데 일부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시는 마음[情意]이 움직이는 것이다<sup>19)</sup>

위의 인용 속의 詩는 물론 『詩經』의 詩를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공자의 문학관이 효용적 가치나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들 생각하고 있었다.<sup>20)</sup> 그러나, 『詩經』 「大序」篇의 내용을 통하여 詩는 효용적·사회적 기능 외에 인간의 순수한 감정의 표현이라는 사실도 인정된 것은 시의 심미적 기능까지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측면에서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茶詩를 정의하면, ‘茶詩는 茶를 소재나 제재 삼아 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다양한 묘사 방법을 통하여 함축적으로 나타낸 글’이라는 풀이가 가능하다. 茶는 凡人이 접할 수 없는 맑고 깨끗하며 향긋하고 담백한 맛을 지닌 고아한 선비의 기상을 지녔다. 그러므로 茶詩는 이와 같은 인물들에 의해 茶를 소재로 삼거나 주제로 삼

19) 『詩經』, 「大序」, “詩者 志之所之也”

20) 『莊子』, 「天運」에 “孔子는 『詩』·『書』·『易』·『禮』·『樂』·『春秋』의 六經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였다.[兵治詩書禮樂春秋六經]”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아 운율에 맞게 압축적으로 묘사한 문학 작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차는 맑고 담백한 맛을 갖고 있고 자연을 그대로 담은 순수하고 깨끗한 빛으로 은은한 향을 내뿜는 고아한 선비의 기상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茶詩는 지조 있고 학문이 깊은 선비의 시재가 되어 때로는 道家的 心想으로 때로는 함축적으로 사회의 실태 표현을 담아 왔고, 선승들에게는 수양의 매체로 내면의 미와 선을 담은 친구로 때로는 속세의 티끌과 욕신을 씻는 물로 자리 잡으며 오늘날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내면을 관조하며 무아지경으로 자연에 몰입하게 하는 탈속의 멋과 운치가 담겨 있다.

### 3. 高麗 茶詩 발달의 배경

고조선 때부터 시작된 우리의 차 생활은<sup>21)</sup>, 중국인이 마실 거리로, 일본인들이 권위적인 儀式문화로 자리 잡은 데 비해 神佛에게 바치는 성스러운 음료로 여겨졌다.

우리나라는 삼국이 성립되기 이전에 이미 한자가 들어와 『삼국사기』에 “태학을 세워 자제들을 교육시켰다”<sup>22)</sup>라고 한 바, 고구려에서는 4세기 후반기에 이미 학교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미루어 당시의 한학이 자못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한문학이 생성되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시경』의 시를 본떠 짓기 시작하면서 시문학으로부터 비롯되었다.<sup>23)</sup>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미 상류 계층에서는 생활화되고 있던 茶문화도 자연스럽게 문학과 결부되었을 터이고, 많은 작품과 역사적 기록 속에서 삼국시대의 차 문화를 알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설총의 「花王戒」, 최치원의 「謝探請料錢狀」, 「眞鑑禪師大空塔碑銘」, 『삼국유사』에 기록된 충담사, 寶川·孝明 두 太子의 이야기

21) 拙稿, 앞의 논문, pp.9-10.

22)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小獸林王2年條

23) 文璇奎, 앞의 책, p.148.

들로 미루어 볼 때 이 시대에도 이미 茶詩가 지어졌으리라고 짐작되나, 현재는 유감스럽게도 지장법사의 「送童子下山」 외엔 전해지는 것이 없다. 또한 이 시기에는 표면적으로 유가사상이 지배한 듯 하나 내면적으로는 신라 시대로부터의 불교 사상이나 도교 사상에 의지하였는데 이제 현의 “오늘날 배우는 사람들은 모두 佛界의 유식한 사람을 따라 글을 배운다”<sup>24)</sup>는 구절로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의 문학이 불교 사상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大覺國師·圓鑑國師·나옹선사·大鑑國師 등을 비롯한 詩僧과 學僧의 출현으로 불교 사상이 문학에 끼친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삼국시대의 귀족, 선승, 왕을 중심으로 한 귀족 문화였던 차 문화가 대중화되어 茶가 가장 널리 확산되고 발달되었던 시기이다. 특히, 우리 전역에 차가 확산된 고려 시대에는 국가의 많은 행사에 차가 쓰여 졌을 뿐만 아니라, 고귀한 물건으로 여겨져 임금이 신하에게 차를 내리기도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王室과 大臣, 심지어는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飲茶했고, 평민들에게까지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sup>25)</sup> 太祖 王建은 軍民에게 茶와 幘頭 등을 下賜했고,<sup>26)</sup> 광종 때부터 功德齋에 공양할 茶를 王이 손수 茶磨에 가는 풍속이 생겨나, 崔承老는 성종에게 中止를 건의할 정도였다.<sup>27)</sup> 이와 같이 高麗는 飲茶의 범위도 확대되었고 생활화되어 민간에는 茶店이 생겨났고, 궁중에서는 많은 차를 필요로 하게 되어 차를 다루는 관청인 다방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茶房은 책봉의식, 사신 대접 등의 차를 끓여 예를 행하는 진다 의식은 물론 왕이 공신에게 차를 하사할 때 나르는 일 등 국가의 茶에 관한

24) 李齊賢, 『櫟翁稗說』 前集, “今其學者, 皆從釋子, 以習章句”

25) 拙稿, 앞의 논문, pp.32-45. 참조.

26) 『高麗史』 卷1, 「太祖14年 8月 癸丑條」, “秋八月癸丑 甫尹善規等遺羅王鞍馬綾羅綵錦并賜百官綵帛軍民茶幘頭僧尼茶香有差”

27) 『高麗史』 卷93, 「列傳」 卷6, 「崔承老傳」, “竊聞聖上 爲設功德齋 或親碾茶 或親磨麥 臣愚深惜 聖體之勤勞也”

大小 행사의 모든 일을 맡아 관장하였다. 이 속에서 궁중에서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차생활의 법도와 의식이 생겨났고, 이것이 일반 사원이나 儒家의 사대부에게까지 확산되어 고려 때에는 차를 생활화하면서 차를 풍류적으로 즐기며 詩· 畵를 같이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일상으로 차를 마시며 詩를 주고받는 茶會를 하고, 차를 마시며 情談을 나누는 차 모임이 많이 벌어졌다. 심지어 누가 더 차를 맛있게 잘 끓이는가를 겨루는 鬪茶會, 茗戰[차 겨루기 대회]도 있었다. 특히 중국에 유학했던 선승들은 중국에서 배워온 차 문화로 고려의 차는 다양한 문화로 발전되었고 다기의 발달로 인해 청자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침은 물론 우리의 차정신의 바탕을 마련하였는데, 이 모든 일상적인 차 생활은 茶詩의 제재가 되었다.

특히 무신의 난(1170)이 일어나 국정을 무신들이 독단하는 사태가 발생<sup>28)</sup> 혼란기·과도기가 오히려 사상적으로는 자유로워서 이 시기에는 문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 속에서 자신의 官位를 지키고자 무신 정권에 협조하기도 하였지만, 많은 문인들이 관직을 버리고 은둔을 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전원생활과 山寺의 생활은 많은 시문을 낳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미래구복, 정신적 평안의 방편으로 불도에 매진하게 되어 불교가 발달하게 되었고, 이와 부응하여 차 문화와 자연주의적 경향이 농후한 茶詩가 발달하게 되는 터전을 이루었다.

### Ⅲ. 高麗 茶詩에 나타난 脫俗과 養生의 美學

최초의 茶詩는 西晉 後期(3세기말-4세기초)의 두육(杜育)이 노래한 「천부(荈賦)」일 것이다.<sup>29)</sup> 그 후 시대를 거듭하면서 많은 茶에 대한 글과 노래가 나왔지만, 당나라의 盧同의 「走筆謝孟諫議寄新茶」가 후세에까지

28) 申用浩, 「李奎報研究」, 高麗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5, pp.10-11.

29) 陳祖榮·朱自振, 『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 農業出版社, 1981, p.204.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며 차 생활에 영향을 끼쳐 왔다.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부터 차에 대한 많은 문장들이 쓰여졌지만, 여기에서는 고려시대의 차를 소재로 지어진 운문, 즉, 茶詩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 1. 탈속의 理想 世界

고려는 명분상으로 고구려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었으나 문화적 측면에서는 統一新羅의 문풍을 이어 받았다. 그러나 왕조를 굳건히 하고 민심 수습으로 사회적 혼란을 극소화하기 위해 과거제도를 도입하고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장려하였다.

과거제도의 실시는 그 시제에 詩, 賦, 頌과 같은 심미적 형식주의 문학에 관심을 갖게 하는 간접적 동기가 되었다.<sup>30)</sup> 결국 고려 전기 문풍은 1190년 무신란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고려의 문화 수준을 또 다른 면으로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니 飲茶 풍속도 그 하나이다. 『高麗史』와 『高麗史節要』 등의 기록을 보면 왕이 백관이나 군민에게 차를 하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의 차는 금, 은, 비단과 견줄만한 귀중한 물품으로 여겨진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차를 즐기고 귀히 여긴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의 飲茶風俗이 확산된 주용 원인은 불교의 영향이다. 산사의 승려들은 고려가 불교진흥책을 쓴 것에 힘입어 차 마시는 풍습도 더욱 발전시켰다. 차나무는 대부분 남부지방 名刹 주위에 재배되며 선승들의 득도의 벗으로 귀중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불가의 進茶儀式은 연등회, 팔관회의 주류를 이루며 승려뿐만 아니라 士人들과 평민에 이르기까지 음다풍속을 확대시킨 것이다. 무신정권이 들어서며 당시 대학자들은 산수 속에서 吟風弄月하며 중국의 竹林七賢을 흠모하여 스스로를

30) 徐居正, 『東人詩話』 卷下 “光宗始設科 用詞賦 睿宗喜文雅 日會文士唱和繼而明亦尚儒雅 忠烈與詞臣唱酬 有龍樓集 由是俗尚詞賦務爲抽對”

海左七賢<sup>31)</sup>이라 일컬었다. 뜻을 같이 하는 同人들은 자주 詩會를 열었는데 이 때 차와 詩가 함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들은 차로 마음을 다스리며 창작의 제재로 삼아 자신의 처지와 소외감을 상징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고려 사회 士人들의 삶의 갈등과 고뇌 속의 자기 도야와 현실 극복은 바로 탈속의 좋은 시적 제재가 되었다.

고려 시대의 脫俗을 다룬 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眞覺國師의 「전물암에서[寓居轉物庵]일 것이다. 이 빠진 찻잔과 발 부러진 솔에 차 끓이고 죽 끓이는 탈속한 스님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또 다른 시에는 “차 한 잔 마셔 흥미한 정신 맑아지니”라고 한 바, 國師는 일찍이 차의 효능에도 통달했던 듯하다.

五峰山前古岩窟	오봉산 앞에 해묵은 바위굴,
中有一庵名轉物	그 가운데 암자 하나.
我棲此庵作活計	내가 이 암자에서 살기로 작정했지.
共可呵呵難吐出	허나 나는 크게 웃을 뿐 조잘거리지 않아.
缺唇椀折脚鐺	이가 빠진 찻잔과 발 부러진 솔으로
煮粥煎茶耶遣日	죽 끓이고 차 달이며 소일한다네.

<後略>

無衣子 眞覺國師(1178-1234)는 1201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뒤에 曹溪寺의 지눌에게서 중이 되어 大禪師가 되었다. 이 빠진 찻잔과 다리 부러진 무쇠솔에 죽 끓이고 차 삶는 일상적인 하루 살림에서조차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국사의 삶은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마당도 쓸지 않고 지는 해 보지 못하고, 뜨는 해도 보지 못하고 경구도 잇고 계율도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도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모두가 부질없는 것이다. 창공의 새와 같이 자유롭고 허공의 구름같이 자유자재한 그의 삶은 바로 조사와 부처의 삶이다. 누가 길을 물으면 동서남북 바라보며 손뼉치고 크게 웃을 뿐이다. 깨달음의 경지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속세의 사

31) 海左七賢 : 林椿·李奎報·吳世才·趙通·皇甫抗·咸淳·李湛之

람에게는 깨달음의 이치는 말장난처럼 여겨질 뿐인 것을 무어라 설명하겠는가.

원감국사의 「어떤 선객이 답하다[有一禪者答云]<sup>32)</sup>를 읽어보기로 하자.

寅漿飫一掬    인시(寅時)에는 한 국자의 미음을 마시고,  
 午飯飽一盂    오시(午時)에는 한 발우의 밥을 먹고,  
 渴來茶三椀    목 마르면 세 잔의 차를 마시나니,  
 不管曾有無    유무(有無)를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다 하네.

平常心이 道라는 말이 있다. 태초의 한 소식을 들어 깨달으려나. 그러나 그것은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차 마시고 곤하면 자는 것인 것을. 본시 이곳에는 有無가 없으니, 어느 곳에 가서 유무를 찾으려는가. 道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다. 「한시량이 내가 조계의 자리를 이어 받았다는 말을 듣고 시를 보내 축하하였기에 그 운을 따라 답함[韓侍郎 聞豫嗣席曹溪 以詩寄賀 次韻答之]에도 “만일 산중에 무슨 일거리 있는가고 묻는다면[若問山中何事業], 한 발우의 나물과 한 잔의 차라 하지[一盂蔬了一甌茶]”라고 세상의 바른 이치는 자연을 묵묵히 따르는 가운데 있음을 말하였다. 이런 사고는 다른 선승들도 마찬가지로였다.

懶翁禪師의 「보선자가 계송을 청하다[請普禪者偈頌]를 읽어 보자.

本自天然非造作    본래 하늘이 내리신 그대로요 꾸민 것 아니니  
 何勞向外別求玄    어찌 수고로이 유별스레 따로 이치를 구할까  
 但能一念心無事    다만 한 가지 도에 몰두하면 마음은 일 없으니  
 渴則煎茶困則眠    목마르면 차 달이고 피곤하면 잠잘 뿐

목마르면 차 달이고, 배고프면 나물 먹고, 곤하면 자는 이 도리를 알 것 같으면 따로 선지식을 구하지 않고 다시는 금생에 길을 잃지 않으리

32) 『圓鑑國師歌頌』

라는 내용은 원감선사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구도의 목적이 같은 때문이겠지만, 같은 승려가 아니라 士人이어도 득도의 마음을 표현하기는 그 내용이 같을 것이다.

李奎報의 「천마산에서 놀며 짓다[遊天磨山有作]」를 보자.

<前略>

山僧出門笑迎客	산승이 문에 나와 웃으며 객을 맞으니
貌古松頭千歲鶴	고고한 그 얼굴 소나무의 천년 묵은 학이네
困臥松軒山月白	그대로 솔 난간에 누우니 산 달 밝아 오는데
煎茶不問巖泉涸	차 끓이는 소리 바위 사이의 샘물인 양 들리네
我樂忘憂師大嘯	나는 즐거워 근심 잊는데 스님 크게 웃으며
本自無憂誰是樂	원래 근심 없으니 즐거운 것은 무엇이리

<後略>

우연히 들린 인적 없는 山寺에서 鶴처럼 德이 높은 산승은 웃으며 문에 나와 맞이했고,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차를 끓인다. 이규보에게 불교의 의미는 불심 깊은 신자로서의 종교적 가치이기보다 최고의 세속적 가치를 능가하는 더할 수 없이 높은 가치를 채워주는 피안의 세계인 듯하다. 그에게 승려는 속세의 인간의 대칭적 인물로, 山寺는 속세의 생활을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인 것이다. 그리고 茶는 속세와 仙境을 서로 연결해주는 고리인 것이다. 인간 이규보와 선경의 山僧은 보자마자 서로 마음이 통했다. 흠모의 마음으로 스님이 즐기는 차를 함께 음미하니 세상일은 씻은 듯 사라진다. 원래 근심 없는 것을 스스로 근심을 만들어 고뇌하는 것이 인생인가. 일시에 생각은 명쾌해져 밝은 산달처럼 눈이 트인다. 차 끓이는 소리가 바위틈에 흐르는 샘물과 같이 들릴 정도의 고요한 정적. 선사는 다만 웃을 뿐인데 禪問答과 德談을 쏟아내는 듯하다.

洪侃의 「김둔촌의 四時詩 구양공의 운에 화답하여[次韻和金鈍村四時歐公韻夏]」라는 탈속을 제재로 한 시를 보자.

松江叢書不輟草	송강의 글을 모아 하나도 버리지 않으니,
紙札相壓筐箱小	종이가 가득 쌓여 상자가 작다.
杞未棘兮菊未莎	枸杞에는 가시가 없고, 국화는 사초(莎草)가 아니니,
肯羨人間擊鮮飽	어찌 생선회에 배부른 사람들 부러워하리.
十角吳牛二頃田	다섯 마리 오나라 소로 두 이랑 밭 가니,
西山朝來一雨好	아침에 한번 오는西山비가 좋구나.
躬負畚鍤理吾稼	삼태기와 가래삽 지고 농사일 돌보나니,
木決驪邊立水鳥	언덕가엔 물새가 서 있구나.
顧渚又復置茶園	고저에 또 차밭을 두었으니,
茶譜水經推勸早	茶譜와 水經을 일찍부터 알았도다.
此中淸風知者誰	이 속의 맑은 바람을 그 누가 아라.
涪江漁父紫溪老	涪江의 어부 紫溪의 늙은이.
(上夏記天隨子)	(위는 天隨子의 여름시를 본뜬 것이다.) <sup>33)</sup>

홍간(?-1304)은 僉議舍人으로 있다가 東萊縣令으로 좌천되어 재직 중에 죽었다. 詩文에 능하고 詩風이 청려했다. 松江은 唐人으로 호는 天隨子인데, 송강 甫里에 살면서 집 전후에 枸杞와 국화를 심어서 반찬하였으며, 차를 좋아하여 고저산 밑에 다원을 두었던 사람이다. 차를 마실 때는 빛깔[色], 향기[香], 맛[味]의 세 가지를 느끼고 생각해야 하니 이를 ‘飲茶三昧’라고 한다. 또한 차를 끓일 때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煮茶三昧’라고 하니, 차, 물[水], 불[火]이 그것이다. 이들 三昧는 각각의 역할과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차는 단순한 음료에 불과하다. 우리가 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한 연록빛의 물을 마시려는 것이 아니다. 형이하학적 물질을 통하여 마음을 정화시키고 형이상학적 효용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茶道’ 혹은 ‘茶禮’라고 하는 것이다. 고려의 士人들은 갈등과 고뇌로 점철된 삶 속에서도 차로써 자기 도야와 현실극복을 추구했던 것이다. 송강의 삶이 그토록 만족스러우면서도 어찌 생선회 먹고 배부른 사람을 부러워하랴. 나물 먹고 차

33) 洪侃, 『洪崖集』

마시고 발 갈고 약초 심고 가래삼 메고 농사를 돌보니, 물가 언덕에 차밭을 일구고 茶譜와 品泉을 일찍부터 알아 속세를 떠나 자연을 벗 삼아 즐기는 생활이 마냥 즐겁게 느껴진다. 이 가운데 맑은 바람을 깨우쳐 아는 사람은 드물다. 모든 인간이 道는 크고 어렵다고만 여겨 일상의 주변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함을 말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탈속을 노래한 茶詩는 자연에 대한 예찬 속에 解脫과 得道의 표상으로 정신세계의 자유로운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선승들은 茶詩를 통하여 자연을 바라보는 관조의 눈으로 자신들의 득도의 정점과 禪을 노래했다. 山寺는 禪僧들의 歸依地로 그들은 산사를 단순한 공간적 개념이 아닌 해탈의 경계로 삼고 있다. 그러기에 그곳은 비록 속인이 방문해도 낯설지 않고 언제든 넘나들 수 있으며 해탈의 세계로 가고 싶은 욕구를 자아낸다. 늘 평온한 즐거움이 담겨 있어 그곳을 찾는 속인들에게는 편안함과 번뇌를 잊게 하는 특별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선승들에게는 해탈과 세속 사이의 문으로 중생구제에 전념하다가도 언제든 득도의 경지로 돌아올 수 있는 곳이기에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즐거움이기에 茶詩의 제재로 돋보이고 있다.

## 2. 茶生活과 養生의 美學

차는 건강음료이다. 중화민국 80년 구중겸(仇仲謙)의 『음다한필(飲茶閒筆)』에는 신농씨가 식물의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루에 백 가지의 풀을 맛보다가 72종의 독을 만났는데 차로 그 독을 풀었다는 설이 있다. 인류가 차를 마신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근래 차의 성분과 효능에 대한 많은 연구발표가 아니더라도 몸에 이롭기 때문에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산사에서 승려들이 차를 음용하고 進茶儀式이 행해진 이유는 차의 약리적 효능도 있지만 승려들의 음식에도 관계가 깊다. 차는 피로감과 권태감을 쫓는다. 사람의 五臟은 모두 五行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 五臟은 오미와 관련이 깊다. 五臟 중에서 肝·脾·肺·腎은 외부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 신체의 조화를 이룰 수 있으나 心을 다스리는 쓴맛은 음식으로 섭취하여 건강을 조절하기는 쉽지 않았다. 승려들은 섭취가 어려운 쓴맛을 차를 마심으로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했다. 우리가 흔히 “차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도 심장을 다스린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신체기관뿐만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까닭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렇게 山寺에서는 차가 수양과 儀式의 중요 대상이었지만 삶의 방편이기도 했으니, 속세를 벗어난 삶을 제재로 노래한 시 속에는 자연스럽게 차의 효능을 깨달아 양생의 수단으로 삼은 것을 볼 수 있다.

원감국사의 「난송선사 인공의 운을 따라 답함[次韻答蘭松禪師印公]」에는 “계산의 가장 깊은 곳에[鷄山最深處], 높다랗게 누워 번잡함을 멀리했네[高臥遠紛華]”라고 하여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져 方외의 한가함을 누림을 묘사하였다.

<前略>

庭空松子落	빈 뜰엔 솔방울 떨어지고
室靜篆煙斜	고요한 집엔 차 끓이는 연기
何以療飢渴	무엇으로 기갈(飢渴)을 다스릴까
香蔬與臘茶	향기로운 나물과 진한 차가 있나니

“무엇으로써 기갈을 다스릴까[何以療飢渴], 향기로운 나물과 진한 차가 있나니[香蔬與臘茶]”라며 향기로운 차와 산나물로 산사에서의 양생을 영위함을 묘사하였다. 솔방울 소리 요란한 산사의 조용한 생활을 담담히 서술하여 한 구절만으로도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하다. 산사의 생활은 대체로 변함이 없다. 차와 산나물은 섭생의 가장 중요한 음식으로 대부분의 산중 생활의 일부분을 논한 부분마다 제재로 떠오르고 있다.

眞覺國師는 차를 받고 “오래도록 앉아 피곤해진 긴 밤에 차를 달이며 무궁한 은혜를 느낀다. 차 한 잔 마시니 흥미한 정신 맑아지고 온갖 시

름을 씻는다[久坐成勞永夜中 煮茶偏感惠無窮 一盃卷却昏雲盡 徹骨清寒萬廬空]<sup>34)</sup>며 누군가로부터 차를 선물 받은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삼동에 들어앉아 참선으로 보내다 밤 깊은 산사에서 차 한 잔 끓여 마시니 온갖 시름이 사라진다. 피곤이 풀리고 정신이 맑아져 온갖 시름은 사라져 버린다. 차의 효능을 이보다 간결하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眞靜國師의 「노승과 회포를 풀다[右叙老僧懷抱]<sup>35)</sup>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貴茗承蒙嶺	몽정산(蒙頂山)의 귀한 차를 받았고,
名泉汲惠山	혜산(惠山)의 이름난 샘물을 길어왔네.
掃魔能却睡	졸음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大客更圖閑	객을 맞아 한가함을 도모해 본다.

중국의 몽정산에서 나는 몽산차는 약효가 뛰어나다고 했고, 육안차는 맛으로 뛰어나다고 했는데<sup>36)</sup>, 진정국사는 몽산차처럼 좋은 차를 선물 받았다. 기쁜 마음에 혜산천 못지않은 좋은 샘물을 길어다 차를 끓인다. 혜산천은 이덕유<sup>37)</sup>가 늘 차를 끓일 때 길어다 쓴 데서 名泉으로 이름이 전한다. 한가로이 앉아 운제스님이 끓여주는 차를 마시니 졸음을 쫓고 맑은 기운이 감돌아 양 겨드랑이에서 맑은 바람이 나와 신선 세계에 오르는 듯하니, 꼭 영약을 먹어야만 늙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바쁜 일상의 여유는 모든 인간의 바람이다. 차 한 잔 나누며 忙中閑의 여유로 반가움을 표하는 모습 또한 찻자리에서나 볼 수 있다. 옥천사의 스님은 나이가 팔순인데도 차 마시고 얼굴이 열 살 어린아이 같았다니<sup>38)</sup> 국사의 모습을

34) 김상현, 『한국의 茶詩』, 민족사, 1997, p.17. 재인용.

35) 眞靜國師, 『湖山集』 卷3.

36) 草衣禪師, 『東茶頌』, “陸安之味蒙山藥 古人高判兼兩宗”

37) 屠隆은 「考槃餘事」에서 “이덕유는 지나친 사치를 하였다. 중서(中書)로 있을 때 惠山[강소성 무석시의 서쪽]의 샘물만 찻물로 사용하였다”고 했다.

38) 艸衣禪師, 『茶神傳』, “玉泉眞公 年八十 顔色如桃李”

도 이와 같을 것이다. 차를 끓이는 데 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물이다. 초의선사도 『茶神傳』에서 “차는 물의 神이요, 물은 차의 體이다”<sup>39)</sup>라며 물의 중요성을 논하였다. 고려 때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金克己의 「박금천에 제함[題薄金川]」에는 물의 중요성이 제재를 이루고 있다.

一道飛川始發源	한 줄기 빠른 시내 근원지는,
紅衢斷處乳山根	인가(人家)가 끊어진 유산(乳山) 백 리
甘涼氣味宜烹茗	달고 서늘한 맛 차 달이기에 알맞아
苦被都人汲引喧	도시 사람들 떠들썩 길어 가는구나
一水來從何處源	이 물줄기 근원은 어디인가
乳山山下白雲根	유산 아래 흰구름의 뿌리이지
試茶處處人相汲	차 달이려고 곳곳의 사람들 길어가니
人去人來盡日喧	오고 가는 사람들 온종일 떠들어대네

박금천 빠른 냇물의 근원지는 저 멀리 유산의 깊숙한 산 속 흰 구름 아래인데, 일찍이 세상 사람들이 이 물맛을 알아, 달고 시원함이 좋아 다투어 항아리를 이고 달려온다. 밀리는 인파가 줄을 이어 길가에는 사람 먼지가 자욱하고 마을마다 차 달이는 연기가 석양 노을을 물들이고 있다. 이렇듯 차를 좋아했던 고려인들은 차의 효능을 일찍이 깨달아 차를 섭생을 돕는 중요한 물건으로 여겨 왔다. 그런 속에서 차 생활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茶具들도 많이 있었던 바, 이들을 소재로 하여 지은 茶詩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李仁老의 「절에서 연고차를 갈다[僧院茶磨]」는 떡차를 갈던 맷돌을 소재로 한 시이다.

風輪不管蟻行遲	바람이 건드리지 않으니 개미 기듯 더디고
月斧初揮玉屑飛	초승달 같은 도끼 굴리니 찻가루가 날린다.
法戲從來眞自在	법회는 참다운 自在로부터 오고
晴天霄吼雪霏霏	맑은 하늘 우레소리에 눈발이 휘날리네.

39) 艸衣禪師, 『茶神傳』, “茶者水之神 水者茶之體”

차를 갈면 시름도 녹아 근심이 사라진다. 편안한 마음으로 차를 곱게 가는 데에 여념이 없으니 정신이 집중된다. 법을 깨닫는 이치도 마찬가지로 지일 것이다. 도의 깨달음이 꼭 세상사와 분리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상사 속에 법을 깨달은 기쁨과 禪悅이 있는 것이다. 차맷돌은 이렇듯 단순한茶具 외의 수양의 도구로도 이용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茶磨에 대한 시는 李奎報의 「차 맷돌을 준 사람에게 사례하다 [謝人贈茶磨]」에도 나와 있다.

琢石作孤輪	돌을 쪼아 맷돌을 만들어
廻旋煩一臂	자꾸 돌리니 어깨가 번거롭구나.
子豈不茗飲	그대 어찌 차를 마시지 않으리오만
投向草堂裏	초당으로 보내 주시었네.
知我偏嗜眠	내가 몹시 차 좋아함을 아셔서
所以見寄耳	나에게 보내신 것이지.
研出綠香塵	차를 가니 향긋한 푸른 가루가 일어
益感吾子意	그대의 마음 더욱 고마울 뿐.

귀중한 차 맷돌을 선물 받고 그 기쁨을 읊은 시이다. 떡차를 가는 수고로움으로 어깨가 빠근하지만 차를 마시는 기쁨을 생각하면 즐거움이다. ‘綠香’은 研膏茶를 차나무의 연한 새순을 따서 금방 만들어 아직 녹빛이 도는지, 아니면 차 잎을 연상하여 녹향이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연고차를 갈아 먹는 고려의 차 문화를 알 수 있다. 이규보의 또 다른 시 「남쪽 사람이 보낸 철병을 얻어서 차를 끓여보다[得南人所餉鐵瓶試茶]」<sup>40)</sup>는 鐵瓶이 중심 제재이다.

猛火服悍鐵	센 불이 강한 쇠 녹여내어
刳作此頑硬	속을 파 둔하고 단단한 것 만들었다.
喙長鶴仰顧	긴 부리는 학이 돌아보는 듯

40)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3.

腹腸蛙怒迸 불룩한 배는 개구리가 벌떡거리는 듯  
 柄似蛇尾曲 자루는 뱀 꼬리 굽은 듯  
 頂如鼻頭癭 모가지는 오리 목에 혹이 난 듯  
 窪却小口甌 입 작은 항아리처럼 우묵한 것이  
 安於長脚鼎 다리 긴 솥보다 안전하다.

남방에 사는 사람이 차 좋아하는 것을 알고 찻물 끓이는 탕관을 하나 보내 주었다. 차인에게 찻물은 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철로 된 병인데 생김새는 학의 긴 부리 같은 주둥이와 불룩한 배, 손잡이는 뱀 꼬리 같이 굽었고, 모가지는 오리 목에 혹이 난 듯 불룩하고 입은 작다. 그런데도 오히려 다리가 긴 솥보다 쓰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다.

철병을 세밀하게 묘사한 것으로 미루어 뚜껑은 아예 없었나 보다. 주물로 단단하게 만든 탕관은 뚜껑 없이 위에서 물을 붓게 되었다. 좁은 입구를 따라 조금 내려가면 혹이 달린 듯 좀 크게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져 물이 끓어도 넘치지 않게 여유를 두었다. 마치 오리의 긴 목에 혹이 난 듯하다. 부리는 길어서 작은 차 그릇에도 물을 따라 붓기에 편하게 되어 있고, 얼핏 보기에는 작은 듯해도 배가 불룩하여 찻물 끓이기에 알맞은 양의 물을 넣을 만하다. 자루는 길어 뜨거움을 면할 수 있으니 찻물을 끓여 쓰기에 참으로 알맞은 주전자를 얻은 것이다. 이렇듯 차를 아는 사람이 만들어 선물한 것이니 이규보는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했을까.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李穡의 「堂弟 이우량의 서신과 찻잔 한 쌍을 얻다[得堂弟李友諒書及茶鍾一雙]」에서는 찻종을 제재로 읊었다.

得聞平安喜已多 평안타는 소식 보니 기쁘기 그지 없는데,  
 茶鍾照目便無邪 눈부신 찻잔은 또한 반듯하기도 하여라.  
 雞籠山下人烟少 계룡산 아래엔 인적이 아주 드물거니와  
 坐想長江浸月華 장강에 잠긴 달빛을 앉아 상상할 뿐이네.

당제 이우량이 찻종 한 쌍을 보내 주었는데, 이 찻종은 아마도 계룡산

아래에서 만든 분청 찻종인 듯하다. 목은이 살던 고려 말 조선 초기에는 계룡산 일대에서 분청사기가 대단히 발달되었던 때로 스님들이 가마를 묻고 직접 도자기를 구웠는데, 禪家의 스님들이 도자기를 통해 꾸미지 않는 無爲의 道와 空의 경지에 몰입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루어 놓은 것이 분청사기의 차원 높은 미의 경지다. 분청사기에는 삿됨[邪]도 없고 꾸밈과 작위, 사치와 화려함도 없다. 차는 그렇게 소박하고 진솔한 것이다.

차는 여러 가지 상징으로 다가선다. 때로는 하나의 찻잔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주기도 하고 찻물 끓는 소리를 松風聲에 빗대어 표현하며 방안에 앉아서도 자연 속에 있는 듯 만족감을 주기도 한다. 승려에게 차는 정신 수양이나 수면을 쫓고 머리를 맑게 하는 약리적 효과가 증시되었다면, 사인들이나 조정의 왕족들에게는 품위와 예를 강조하는 자기 수양과 교육적 효과를 중시하는 의례의 관점에서 발달되었다. 그러나 당시 육우의 『茶經』이 지식인들 사이에 읽히면서도 그 약리적 효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는 않은 듯하다. 당시 중국에서는 차가 한방 치료의 한 재료로 쓰이기도 했으나 차에 대한 약리적인 관심이나 연구가 없이 하나의 수행의 음료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규보가 그의 시 「옥당 손득지 사관 이운보 사관 왕송 내한 김철 사관 오주경이 화답시를 보내왔기에 다시 운을 따라 화답하다[孫玉堂得之李史館允甫王史館崇金內翰轍吳史館柱卿見和復次韻答]에서 “세속의 의원들이 선방(仙方)에 어두운 것과 같아 망령되게 산머루를 가리켜 칩덩굴이라네[有如俗醫迷仙方 妄把蓂輿云是藥]”라고 할 정도로 당시 의원들이 차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이 부족하기도 했나보다. 의원들마저도 산머루와 칩덩굴을 구분하지 못하듯 차를 구분하지 못하니 더구나 世人들은 무엇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단지 귀한 분이 마시는 음료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못했고 약리적 효능도 무지했나 보다. 차에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고 이것은 신화적 차원이 아니라 과학적 관점에서 이미 규명되고 있다. 그러나 고려에는 상층 계급과 불가에 쓰였던 차

에 대해 이를 즐기던 지식인들이나 의원마저도 차의 효능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당시 지식인들의 차에 대한 전문성 결여의 세태를 역설적으로 풍자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茶詩는 일상생활의 차를 제재로 쓰여졌으므로 그 시대의 사회상, 풍습, 차생활의 모습, 도구, 예절 등을 알 수 있다. 오늘날과 달리 研膏茶를 갈아 체에 친 고운 가루차를 茶盃에 擊拂해 마시던 點茶法으로 차를 마셨으므로 그에 알맞은 차 그릇들을 사용했다. 고려 茶詩 속에 나타난 차생활은 오늘날의 가루차 다법과도 차별화되어 그 시대만이 갖는 독특한 다법을 보여준다. 지고한 정신세계는 속인에게도 편안한 즐거움 속에 새로운 차생활의 모습을 재창조하게 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 V. 結論

차는 물질적인 개념과 정신적인 개념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물질적인 차는 잘 끓인 물에 차를 우려 마시는 것이요, 정신적인 차는 법도에 맞는 차 생활을 통하여 현묘한 경지를 터득하는 구도적인 자세의 정신세계를 말한다. 특히 차정신은 그 시대를 지배하던 사상과 철학에 바탕을 두고 유교의 다례의식, 불교의 茶禪一如의 정신세계, 도교의 自然合一 사상으로 발전되어 오며, 실생활면은 물론 자연을 예찬하고 철학과 풍류의 멋을 완성하는 근거를 이루며 수많은 茶詩를 낳는 발판이 되어 왔다.

고구려의 제천의식, 삼국시대의 헌다의식, 고려시대의 진다의식으로 변천되어 오는 동안의 임금이나 사대부, 일반 백성에게까지 차 생활은 확산이 되었지만, 이 시대에 사용되었던 글자가 漢字였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茶詩를 쓴 작가들은 대부분이 상류층, 즉, 왕족, 승려, 사대부들이었다. 또한, 차는 단순히 먹는 음료로서만이 아닌 神과의 架橋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그 바탕이 養生에 있는 만큼 다른 소재를 詩로 표현

한 것보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더 자연스러워 읽는 이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茶詩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선비들의 기풍과 茶와 茶詩를 통한 돈독한 교분, 자연과 일치된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사사로운 욕심 없이 인생을 여유 있게 정신적 풍요를 만끽하며 살던 지혜를 느낄 수가 있다.

특히 고려 때 차 문화가 일반 평민에게까지 확산되어, 조정에는 茶房이 설치되고 향간에는 차를 파는 茶店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시대의 茶詩 속에 나타난 고려인들의 차 문화와 사상, 감정은 단순한 고려 문화만이 아닌 우리 민족의 차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사료된다. 이에 여기에서는 茶詩 속에 용해되어 있는 탈속과 양생에 대한 미적 고찰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茶磨, 茶竈 등 고려의 특별한 다구들은 茶人들에게 새로운 현대적인 高麗茶를 제안하며 앞으로의 도자문화 발달에도 크게 공을 세우리라 기대한다.

<參考 文獻>

『詩經』 『書經』 『莊子』  
『高麗史』 『三國史記』 『三國遺事』  
徐居正, 『東人詩話』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李齊賢, 『櫟翁稗說』  
眞靜國師, 『湖山集』  
草衣禪師, 『茶神傳』  
———, 『東茶頌』  
洪侃, 『洪崖集』  
陸羽, 『茶經』

김상현, 『한국의 茶詩』, 민족사, 1997, p.17. 재인용.  
文璇奎, 『韓國漢文學』, 반도출판사, 1979.  
朴淑姬, 『韓國茶禮研究』, 韓國教員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5.  
申用浩, 『李奎報研究』, 高麗大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5.  
仇仲謙, 『飲茶閒筆』, 稻鄉出版社, 中華民國 80.  
陳祖棻·朱自振, 『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 農業出版社, 1981.

### Abstract

*A Study on Korea Poetry of Tea Up To the Period of Koryo Dynasty*  
/ Park Sook Hee\*

The tea was first introduced to people of Korea from the time of Kochoson(early ancient times) as part of their life to these days. From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Koguryo, Backjae, and Shila), Koryo, and Chosun, the tea was first used as an offering to god in a ceremony. However, it has been further expanded not only to the national ceremonies, but also to the ordinary people of Korea in their daily home life.

Furthermore, the tea has brought out many other important aspects in our lives. For example, it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ceramic wares used for drinking tea; introduced various kinds of food that can be eaten with tea; provided ideas for building constructions which was to be built for enjoying tea in a pleasant surroundings; and also led to development of clothing that were proper attire for tea ceremonies

Many classical scholars enjoyed writing poetries in Chinese. Among their poetries, there were many poetries that were especially related to tea. The importance of tea was apparent in their writings. Not only their thoughts and period of their lives were apparent, but the tea custom and psychological aspect of the tea were also apparent in their poetry.

Among the confucianists, many classical scholars, as they enjoyed the tea, experienced and sought the important aspects of the tea and self-discipline. These aspects of tea not only represent custom or tea and its psychological aspects but also ruled its period of different thoughts and philosophy, artistic,

---

\* Jinchun High School, Teacher / cjtea2000@hanmail.net

and religions.

We tend to observe our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our ancient times by studying the development of tea poetry.

As our classical scholars have done in the past, by sharing a tea time together in the natural environment, they have gained an intimate friendship among themselves. Moreover, due to the fact that tea served a great deal in human health, it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our daily lives.

Above all, through the cultural education literature of tea poetry, we hope to portray more accurate view of our cultural aspect of tea.

**【Key words】** korea poetry, classical scholars, tea, Koryo, nature

투고일 : 10월 31일, 심사일 : 11월 29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